무사시노시 외국적 시민의식 조사 보고서 요약본

2022 년 2 월　무사시노시

일본 정부가 '지역의 다문화 공생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재검토를 추진 중인 가운데 '무사시노시 다문화 공생 추진 계획(가칭)'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적 시민들의 생활 지원 수요에 관한 실태를 다방면으로 파악하고 계획 검토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개요

	설문 조사 및 인터뷰		속성별 공청회
	설문 조사	인터뷰	
조 사 대 상	2021 년 9 월 30 일 기준, 무사시노시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된 18 세 이상 외국적 시민	설문 조사를 통해 인터뷰 참여 의사를 밝힌 외국적 시민	설문 조사 응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 외국적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일본인 등
조 사 기 간	2021 년 10 월 25 일(월)부터 11 월 15 일(월)까지	2021 년 11 월 20 일(토) 부터 12 월 5 일(일)까지	2021 년 11 월 5 일(금)부터 12 월 1 일(수)까지
조 사 대 상 인 원 등	2,841명 회수 건수 : 1,225건 회수율 : 43.1%	58명	・무사시노시 내 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2명 ・일본어 초학자※1 9명 ・외국과 관련이 있는 아이※2 7명 ・외국적 시민 커뮤니티 4명 ・외국적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일본인 （외국적 시민을 고용하는 법인） 1명

※1 : ＭＩＡ에서 진행하는 일본어학습 지원을 받는 시민
※2 : 양친 또는 부모 중 한쪽이 외국적인 경우, 일본어가 모어가 아닌 경우 등의 배경을 가진 아이

설문 조사 및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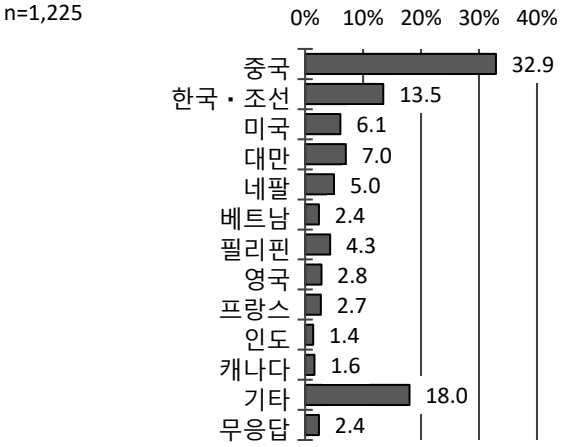
◆설문 조사

（SA）…단수 응답　（MA）…복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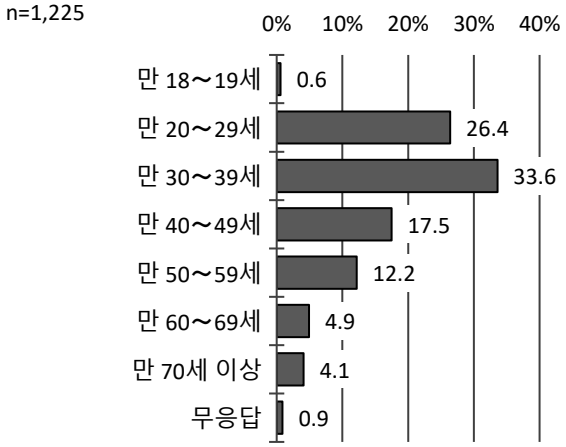
응답률은 백분율（%）로 표시하였으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 관계로 단수 응답의 경우에도 총합이 10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1）인적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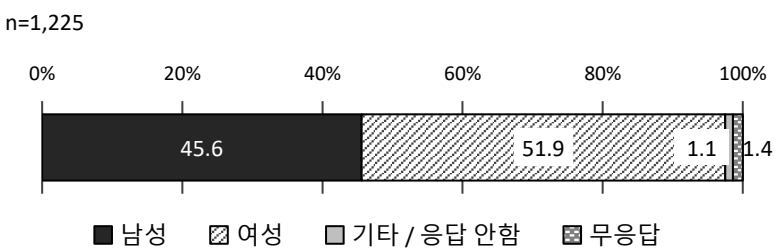
❶국적・지역（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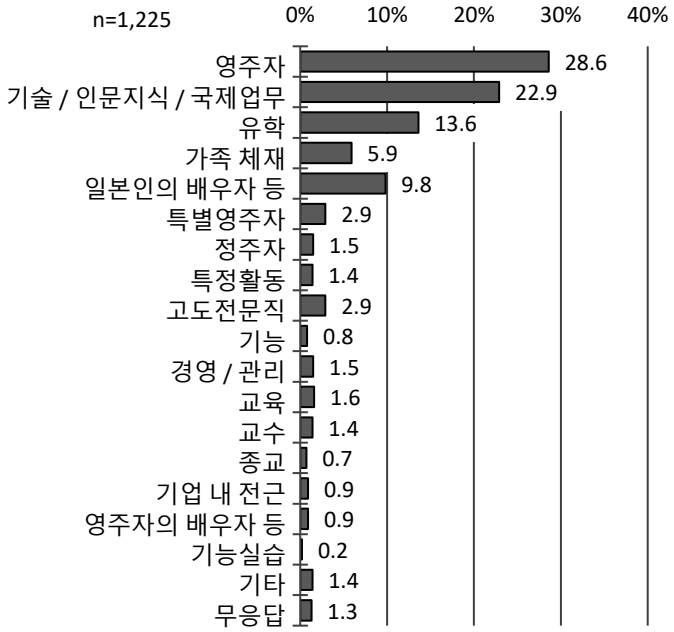
❷연령（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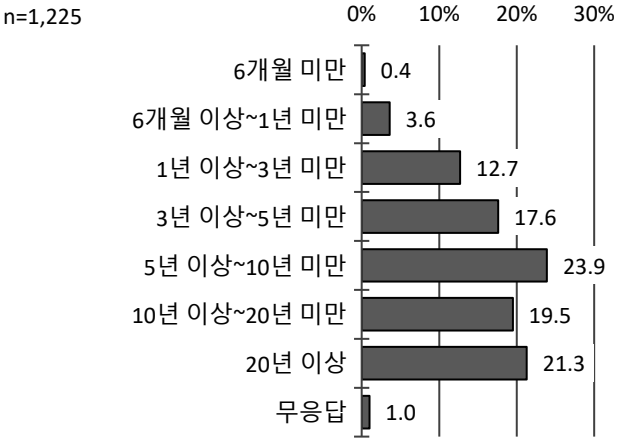
❸성별（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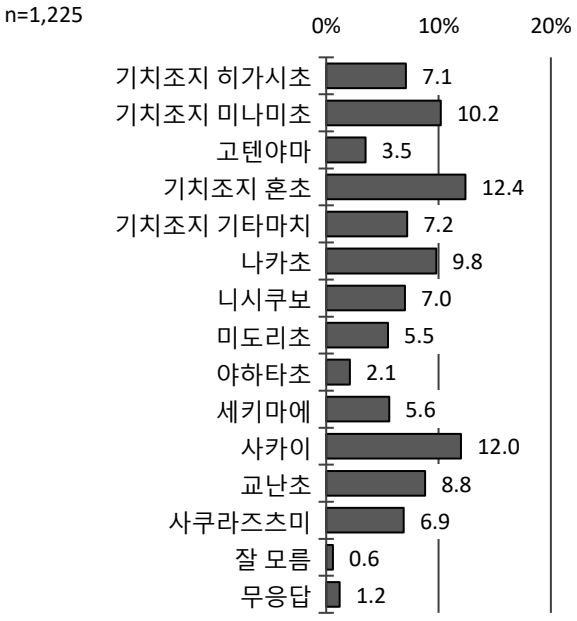
❹현재 재류 자격 (SA)



❺거주 연수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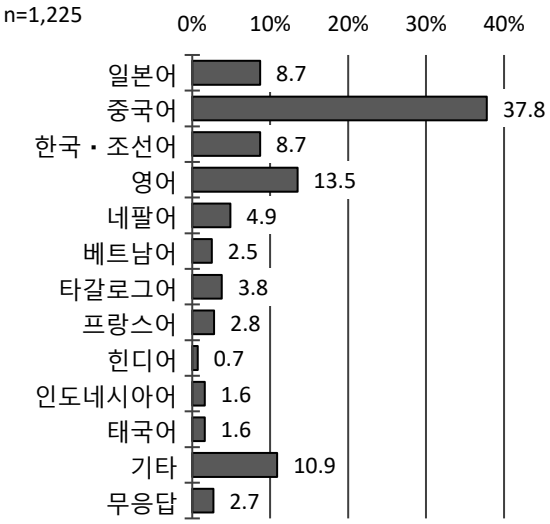
❻주소 (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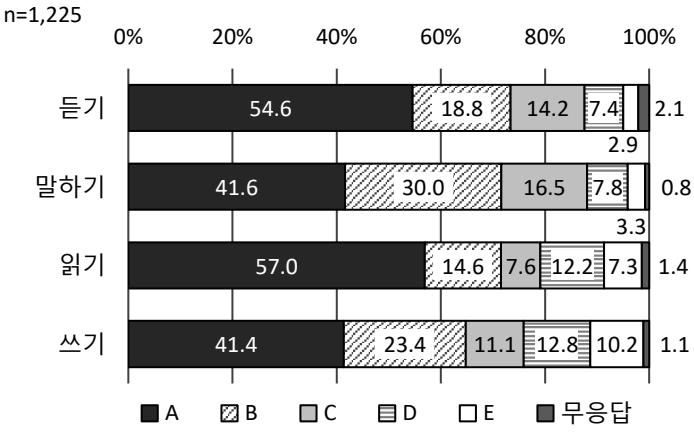
조사 대상자와 응답자의 국적 및 지역 구성비율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연령은 '30~39 세'가 33.6%, '20~29 세'가 26.4%로 40 세 미만이 6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류 자격은 '영주자'가 28.6%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가 22.9%, '유학'이 13.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거주 연수는 10 년 이상이신 분이 40.0%를 넘었습니다.

(2) 언어

❼제 1 언어 (SA)



❽일본어 습득 양상 (SA)



(선택 사항Ａ～Ｅ의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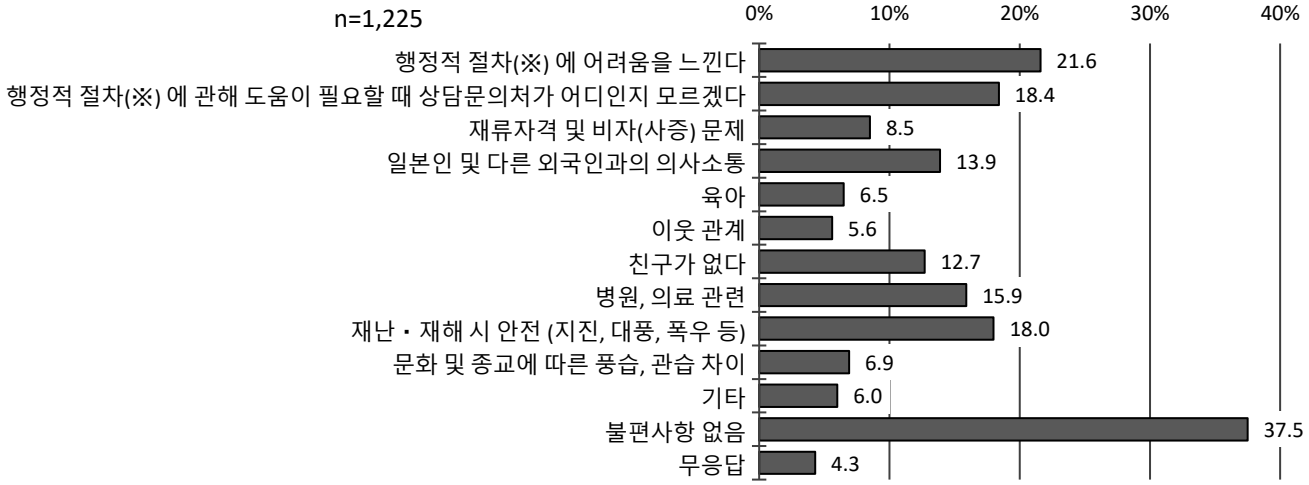
	A	B	C	D	E
듣기	뉴스 및 드라마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다	상대방의 말을 대체로 알아들을 수 있다	상대방이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다	단어만 알아 들을 수 있다	거의 알아 듣지 못한다
말하기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아무 문제 없이 표현할 수 있다	말하고자 하는 바를 대부분 표현할 수 있다	쉬운 일상회화는 가능하다	자기소개, 정해진 인사말과 단어 등은 말할 수 있다	일본어를 거의 하지 못한다
읽기	시청과 학교, 직장에서 보낸 안내문, 소식지 등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시청과 학교, 직장에서 보낸 안내문, 소식지 등을 읽고 조금 이해할 수 있다	신문 및 잡지에 실린 광고와 전단지, 또는 전철역 안내판과 열차 운행 시간표 등을 보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림과 함께 적힌 쉬운 문장 (예: 쓰레기 분리 수거 방법, 음식 만드는 법)을 이해할 수 있다	거의 읽지 못한다
쓰기	문서, 보고서 작성 시 사용되는 문장을 쓸 수 있다	자기소개와 일상생활에 관한 문장을 쓸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간단한 메모를 쓸 수 있다	이름과 국가명, 주소 등을 쓸 수 있다	거의 쓰지 못한다

제 1 언어는 '중국어'가 3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영어'가 13.5%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어 습득 양상은 50.0%를 넘는 분들이 높은 수준의 '듣기', '읽기'가 가능했으며, '말하기', '쓰기'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B 수준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일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불편사항과 고민거리

❾생활하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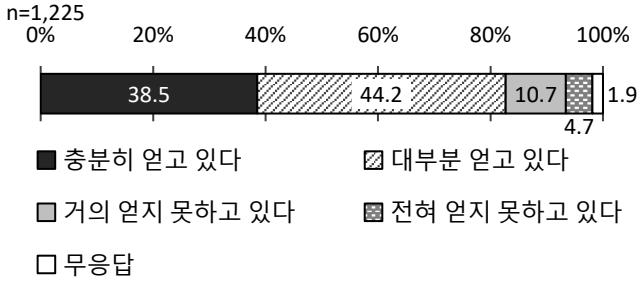
'행정적 절차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21.6%, '행정적 절차에 관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문의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다'가 18.4%로 행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불편사항 없음'이 37.5%로 가장 많아 불편함 없이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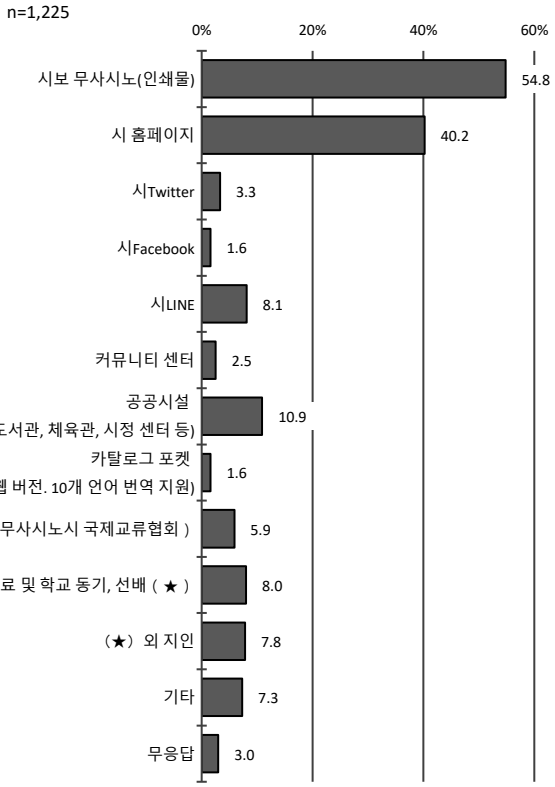
※행정적 절차 : 학교, 유치원, 보육원(일본 어린이집), 건강보험, 병원, 세금, 연금,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 등

（4）정보 및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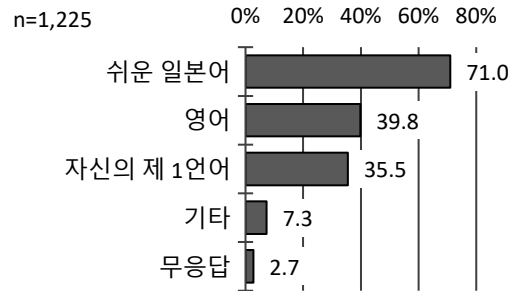
❿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는지 여부 (SA)



⓫정보 입수처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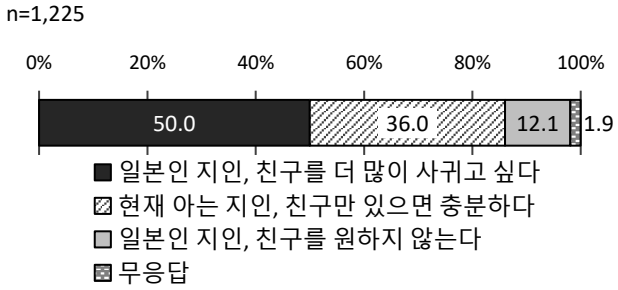
⓬무사시노시에서 정보 제공 시 희망 언어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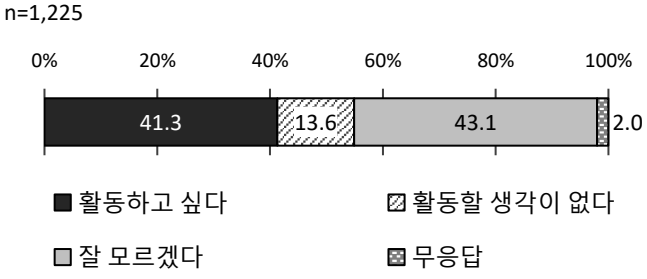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충분히 얻고 있다'와 '대부분 얻고 있다'를 합친 비율이 82.7%로 나타나 많은 분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 입수처는 '시보 무사시노 (인쇄물)'이 54.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시 홈페이지'가 40.2%로 나타났습니다. 또 무사시노시와 관련된 정보가 '쉬운 일본어'로 제공될 경우 읽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0%로 가장 많았습니다.

（5）지역 사회

⓭동네 일본인 지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여부 (SA)



⓮지역 및 동네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싶은지 여부 (SA)



같은 동네에 사는 일본인 지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 여부와 관련하여 '더 많이 사귀고 싶다'가 50.0%, 지역 및 동네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하고 싶은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활동하고 싶다'가 41.3%로 나타나 동네에서 일본인과 동일하게 활동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뷰 【주된 의견】

(1) 정보를 얻는 방법 및 언어 관련

▹Google번역과 스마트폰 어플 등 기계 번역을 사용한다.

▹쉬운 일본어로 작성하거나 토(후리가나)를 달면 읽을 수 있다.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되 요점이 무엇이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강조해 주었으면 좋겠다.

▹모어(다언어)로 작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2) 다문화 공생 관련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 벽을 쌓지 말고 대해 주었으면 한다.

▹외국인과 일본인을 구분 짓지 말고 같은 나라에서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속성별 공청회 [주된 의견]

(1) 정보를 얻는 방법 및 언어 관련

▹ 우송된 서류는 번역 어플을 돌려서 읽거나 MIA 일본어 강습 선생님에게 물어본다. (일본어 초학자)

▹ 번역 어플을 이용해 홈페이지를 확인한다. (일본어 초학자)

▹ 창구에 통역해 주는 분이 계시면 가장 좋다. 통역이 없는 경우 천천히 말하거나 글로 써 주었으면 한다. 글로 써 주면 집에 가서 다시 천천히 읽어볼 수 있다. 또 한자가 많아야 읽기가 편하다. 기계 번역의 경우 오역이 있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다. (일본어 초학자)

▹ "일본어를 잘 하지 못한다"고 말했더니 쉬운 일본어로 친절하게 대응해 주었다. 아이 관련 서류나 가족이 부탁한 서류를 떼러 왔을 때 쉬운 일본어로 대응해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쉬운 일본어라면 조금씩 이해가 가능해지고 있다. (일본어 초학자)

▹ 영어로 된 서류나 한자에 토(후리가나)를 단 서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자는 뜻이 여러 개인 경우가 많아 한자로만 써져 있을 경우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쉬운 일본어도 읽기 편하다. (외국적 시민 커뮤니티)

▹ 쉬운 일본어는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금, 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은 쉬운 일본어로 설명을 들어도 어렵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 계시면 안심이 된다. (일본어 초학자)

(2) 다문화 공생 관련

▹ 외국인은 일본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고, 또 일본인은 외국인에게 허용적인 태도를 가지면 좋을 것 같다. 허용적이지 못한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은 없다. (일본어 초학자)

▹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어 초학자)

▹ 일본과 외국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고 상호 이해를 위한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꼭 참여하고 싶다. (외국적 시민 커뮤니티)

▹ 일본인은 지나친 배려를 조금 자제해 주었으면 한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미 다 아는 것에 대해 똑같은 말을 매번 듣고 싶지 않다. (무사시노시 내 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3) 기타 의견

▹ 일본에 오기 전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지 불안했다.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마음이 컸다. 지금은 한자가 어려워 불안하다. (외국과 관련이 있는 아이)

▹ 이슬람 교도들은 매일 기도 시간이 있다. 기도 장소 및 시간을 확보하고 라마단(단식) 기간 동안 배려와 서포트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히잡(쓰개)을 착용하는 관습이 있는데, 저희 법인은 히잡을 허용하고 있으나 금지하는 법인도 있다고 한다. 종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법인은 그들에게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외국적 시민들과 관련이 있는 일본인)

무사시노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각 모어로 번역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스마트폰 등 기계 번역 및 어플을 사용하여 내용을 파악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문화 공생과 관련하여 문화와 종교의 차이,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벽을 쌓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담당 부서 : 시민부 다문화공생교류과